

깨달은 이치를 일으켜  
행하는 자는 배울 것이  
없어져 단단해지고 짐처럼 것이 사라졌다고  
스스로 방자하면 손해가 있을 뿐 일어나지  
못한다 (법구경·교학품 33절)

# 東大新聞

편집인: 김주익, 김주익, 김주익  
출판인: 김주익, 김주익, 김주익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광동로 37-2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광동로 37-2 동대신문사  
260-3491-2 FAX(02)279-1270  
780-714 경복 경주시 석정동 707(☎ 770-2357)

## 고 육개혁시리즈 3. 조기졸업과 복수전공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많은 학생들은 전공과 졸업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중도에 포기하거나 미리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4학년 2학기를 대충 마무리 하는 경우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본교에서는 이번 교육개혁을 통해 까다롭게만 여겨지던 복수전공을 대폭 수정해 복수전공의 기회를 확대 시켰으며 조기졸업도 6학기 만에도 가능하게 개설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복수전공

복수전공은 다전공, 복합학문 연구를 통해 종합적인 사고력과 고수준의 학력을 함양하기 위해 제1전공 졸업학점 이내에서 제2, 제3의 전공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졸업과 동시에 두개의 학사증을 취득할 수 있는 복수전공의 지원·허가획득을 기존 4학년 1학기초(7학기 등록후)였으나, 2학년 2학기말에 하도록 했으며, 대학이 18학점 이상, 3.0이상의 학생만 신청할 수 있다는 자격 제한도 폐지했다.

또한 '복수전공자는 학과의 전공과목(전공필수, 전공선택) 중에서 55학점을 취득해야 한다'는 조건도 '복수전공하고자 하는 자는 전공(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전공필수이수학점을 이수해야 한다'고 개정되었다. 단 협의학과와 의학과로의 복수전공, 비사범대학생의 사범대 복수전공은 불가능하며 다만 사범계 학과내에서의 복수전공만 허가될 수 있다.

또한 '최소 2학기 이상 등록해야 하면서 5학기 이상 등록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도 삭제되어 졸업요건인 총학점인 연제든지 졸업이 가능하게 됐다.

### 2. 조기졸업

조기졸업은 졸업성적이 우수하여 초과 학점을 취득하고, 기타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학생이 6학기 또는 7학기초 해당학부(과)의 학위를 받는 제도이다.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3학년 2학기초 또는 4학년 1학기초 정해진 기간내에 소정의 지원서를 학과에 제출해 허가를 얻어야 하며, 다만 편입학한 학생은 조기졸업 할 수 없다. 조기졸업에 필요한 성적은 6학기 또는 7학기 평점평균이 4.0이상이어야 한다.

(김기영 기자)

## 되풀이되는 수강정정·분반으로 혼란 신중한 수강신청·치밀한 학사관리 요구돼

서울캠퍼스는 계속되는 분반과 폐강, 강의실 이동에 따른 혼란으로 개강한지 2주가 지난 지금도 일관한 수업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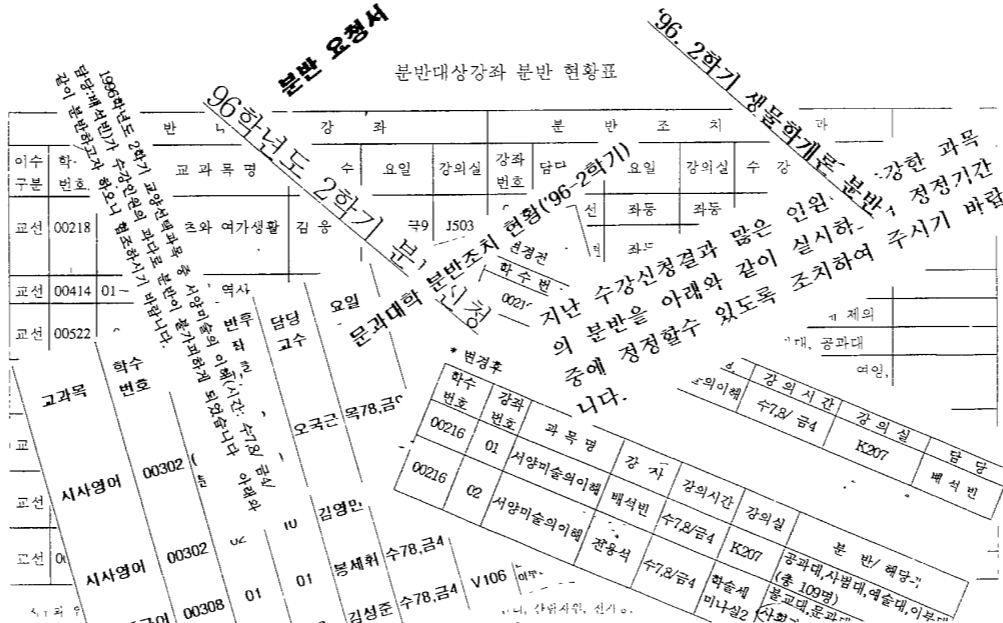
교양강좌 총 65개(같은 이름의 강좌는 1개로 구분) 중 19개의 강좌가 분반되었고, 분반된 강좌를 포함한 25개 과목의 수강정정이 제한됐다.

공고아래에 "복학생이나 재학생 중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던 학생은 수강인원과도 수강신청을 받지 않으니 착오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기존에 수강신청한 학생은 삭제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수강정정제한을 알려준다.

교무과 한문우계장은 "한강좌에 너무 많은 학생이 신청을 할 경우 분반을 통해 해결하지만 같은 과목을 무한대로 분반할 수는 없다"며 "성의 역사라는 과목의 경우 6개 강좌에 1천8백여명이 신청했는데 이보다 인원이 더 증가한다면 수업도, 분반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수강신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은 1차적으로 학생들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나 '수강정정제한'은 '무성의한 강의시간표'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학생의 탓으로 되돌리는 것과 다를바 없다.

강의계획서를 늦게 제출해 계획서 제작이 늦어지게 한 교수들, 학사관의주의를 우선으로 하는 직원들의 모습들이 모두 사라지고 난 후야야 수강신청에 신중을 기하는



언어이 계속되는 분반과 폐강, 앞선데 달린격으로 올해는 수강정정제한까지 실시해 내실있는 개강이 되지 못하 는 실정이다.

학생들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이텔에 글을 올린 권형진(MrBigzz)군은 "시간표를 가지고 빙고게임을 한 것도 아니다 수업까지 시간표를 그려보고나서야 겨우 들을 과목을 결정할 수 있었다"며 "학생들의 수강신청률이 저조한 것도 문제지만 학사관의주의의 결정을 보여준것 같아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교무과 한 관계자는 "6월말의 수강신청률이 80%밖에 되지 않는다"며 "나머지 20%가 수강정정

기간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6월에 신청한 학생수에 맞춰 강의를 늘이거나 줄여 조정을 해도 아무소용이 없게 된다"고 조기수강신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 다.

수강신청 정정 제한 공고 등이 게시되자 총학생회는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의 수강신청만 탓할 것이 아니라 내용성없는 강의시간표 배포와 학생들의 선택이 우선 되지 못한 학사관정의 타성부터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업시간표에 나온 과목명만을 보고서는 그 수업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는 서건일(신방2)군은 "강의계획서가 미미하며 준비되지 않은 수강신청을 할 때 참고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캠퍼스는 96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확인과정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교생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확인과정에선 예전과는 달리 그 규정을 강화한다는 차원으로 4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수강정정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 사항을 살펴보면, △분반이 되었을 때 △폐강이 되었을 때 △컴퓨터 오류가 났을 때 △학생들의 실수로 수강신청이 잘못되었을 때 이다.

또한 교무과(과장=조원생)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만 사유서를 작성한 후, 학과장이나 학부장의 도장을 받아 수강 정정을 할 수 있게 각 교과과에 지시했다.

하지만, 지난 수강신청기간에 이 과 같은 사항의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는 등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한 관계자는 "지난 수강신청기간에 신청했던 과목들을 이번 확인 기간에 많은 학생들이 다른 과목으로 정정하면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주기 때문에 이번 확인기간에는 그런 차질을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방안들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학기와는 커다란 차이점 없이 사유서 작성과 학과장 도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첨가시켰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시행했던 부분에서 몇가지 오류가 발생되었고, 앞으로 학생들은 수강신청기간에 좀더 신중하게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교수동정

▲김철호(한의학)는 '암을 비롯한 신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생명현상 연구'발표차 오는 12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리는 제1회 국제심포지움에 참가.

▲김영길(경영학)은 지난달 6월부터 99년 8월 8일까지의 임기로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경북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위촉.

## 보리수

부처님께서는 유난히도 꽃을 좋아 하셨던 것 같다. 그 중에서도 연꽃을 더욱 사랑하셨으며 여러 경전에서 불교의 상징적인 꽃으로 설해지고 있다. 우선 그 모습부터가 잎은 푸르고 싱그러우나 꽃냄새가 나지 않으며, 꽃은 맑고 향기롭고 우아하지만 요염하지 않으므로 꺾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지 않게 한다. 향기는 진하지 않으면서도 은 도량을 가득 메운다. 또한 연꽃은 더러운 진흙탕에 있으면서도 물결이 없고 풍부한 영양가를 만들어 내며, 줄기는 깊은 물속에서도 기어올라 머리를 밖으로 내민다. 뿐만 아니라 꽃 봉우리와 함께 씨가 영글고 있으니 어머니와 아들이 동시에 태어나는 셈이다. 이러한 연꽃에는 다섯가지 종류가 있다고 한다. 우발리화란 수련을, 구물두화란 문수보살이 가지고 있는 황색 연꽃을, 파두미화란 붉은 연꽃으로 우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분타리화란 백련(白蓮)으로서 번뇌에 물들지 않는 청정무구의 부처님이다. 불성(佛性)에 비유되는 극락세계의 꽃이며, 니노발리화란 청련(靑蓮)으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 가지고 있는 대자대비의 상징적인 꽃이다.

## 연꽃

또 연꽃으로 피는 과정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진다. 꽃봉우리 때에는 곱미라, 꽃이 활짝 피었을 때에는 분타리, 꽃이 질 때에는 가마라라고 한다. 이러한 연꽃중에서도 우담발라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부처님이 한번씩 탄생을 거듭할 때마다 피어나는 것으로 보통 3천년만에 한번씩 꽃망울을 터뜨린다고 한다. 그런데 연꽃의 습성은 깨끗한 물보다는 더러운 곳에서, 흐르는 물보다는 고인 물에서 잘 자란다. 아무리 오랫동안 고인 물이라고 할지라도 연꽃이 있는 물은 썩지 않으며 고기가 살 수 있으므로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능력이 있다.

따라서 불경에서는 사바세계의 오락락세에 있으면서도 번뇌에 물들지 않고 사바를 맑게하며 깨달음의 길로 향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울바를 진리를 설할 때 연꽃에 비유하여 불법연화경(妙法蓮華經)을 말씀하셨으며, 영산회상에서 연꽃 한송이를 들어 보여 가섭존자와 미소를 나누셨다.

이러한 불교의 상징적인 연꽃은 우리 학교의 교화(敎化)이기도 하다. 진정으로 동국의 꽃이 되기위해선 우리 모두가 연꽃과 같이 맑고 향기로운 참다운 인격을 가꾸어 갈때만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 한보광

불교대 선학과 교수

## 오는 11일 영산대법회 개최 3국 불교우호교류회의 행사로

오는 11일 '세계경화기원 영산대 법회'가 문화예술대학원 1백주년 기념사업본부, 정각원의 공동주최로 학술문화관에서 개최된다.

한·중·일 3국의 대표적 고승들이 모여 친선을 도모하고 교류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오늘(9일)부터 12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제2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가 열리는데 이 행사의 일부인 공동법회가 본교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영산대제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법회는 △영산대제 △명회기원 법회 △삼배 및 심회향례 순으로 이어지며 김력수 사물놀이패가 뒷풀이를 장식하게 된다.

또한 영산대 법회가 끝난 뒤에는

학술문화관 그림식당에서 송석구총장 주재로 오찬을 가지며 끝난후 오후 2시경엔 회의 대표단 및 참가단은 구인사·불국사·해인사등을 둘러보게된다.

참가자는 한국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대표단, 고문, 지도요원, 진행요원 1백37명, 중국 자오푸추(趙璞初)불교협회장을 비롯해 43명, 일본 나가무라고류 정토종 종정등 78명등 총 2백58명이 참가한다.

홍윤식(역사교육학)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불교의 전통의식을 새롭게 구현하고 불교 건학 이념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 참 사람 얼린 교육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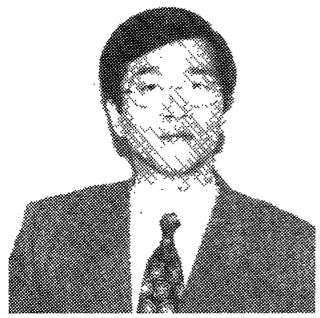
## 시간파괴 할인강의는 사절합니다

아직 늦더위가 남아있습니다. 연속2시간 강의를 고백 채우고 흡신 땀점은 모습으로 강의실을 나서는 교수님을 보면서 오늘은 왠지 교수님께 커피한잔을 대접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문득 며칠전 3·4교시 수업을 가두질미하고 70여분만에 끝낸 강의시간이 생각나 씁쓸했습니다. 더구나 3학점 3시간을 연속강의로 묶어 등록해야하는 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마리와 뒷그리를 슬쩍 잘라먹는 시간파괴 할인강의의 폐단은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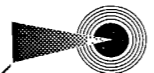
## 동대신문사



# 보수화·공안화에 밀린 '역사 바로 세우기'



박 노 현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 시사논단

### 전·노 재판의 한계

노재판에서는 이와 같은 범죄들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묻지 못했다. 한마디로 전노재판의 한계는 전, 노씨가 책임져야 할 수대한 인권유린범죄들에 대한 단죄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과거의 인권침해에 대한 본격적 과거청산 요구를 두려워한 나머지 이번 재판을 확실재판이 아닌 내란재판으로 끌고간 정권과 검찰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하겠다. 이번 1심재판에서 광주학살의 책임자 규명에 실패한 것은 그 필연적 결과일 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씨등의 사법처리를 요구해온 가장 큰 이유는 다른이 아닌 이의 시민학살, 기타 인권유린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었다. 다만 그것이 내란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내란죄로 걸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노재판의 본질을 신군부의 내란등 헌정 파괴행위에 대한 응징으로 파악하는 최근의 경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하겠다. 물론 전노재판을 내란재판으로 파악한다고 해서 학살등 인권유린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의 내란행위에만 초점이 맞춰지

게 되면 진상규명의 핵심은 이들에게 내란의 고의가 있었느냐로 좁혀지게 된다. 그 결과 최규하의 재가 여부처럼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대목이 가장 큰 장점이 되고 만다. 또한 초점을 내란에 맞추게 되면 일반적으로 벗어나고 동원된 헌장군인들에게까지 내란목적에 있는 것으로 보는 어려움으로 이들의 잔혹한 진압 및 학살책임을 묻는 것이 어렵게 된다.

그렇지만 상급자의 시위진압명령이 있었다고 해서 부녀자의 가슴을 대검으로 찌르는 등의 잔혹한 방법으로 제나라 국민을 무자비하게 다룬 헌장군인들과 소속부대 지휘관의 책임을 방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그냥 둘 경우 전사나 준전사가 되면 군대의 특성상 아무런 거리낌없이 대량양민학살을 자행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 동독 국경수비대원들의 발루자 정조준 사살행위를 인간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양심 긴장의 부재'가 초래한 비인간적 범죄행위로 파악하여 상급자의 명령과 상관없이 실행을 선고하여 처벌할 독일의 경우처럼 우리도 광주학살의 실행군인들에게 대해 일정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군의 기강

확립과 비상시 인권보호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럼에도 검찰은 헌정재판 및 실행군인을 단한사람도 기소하지 않았다. 또한 검찰은 집권과정중 발생한 대표적 인권피해에 대해서도 전혀 중인을 신중하지 않았다. 검찰의 이러한 소수수행방침은 과거의 인권유린사실을 들춰내보아야 자신의 방조, 묵인 책임만 드러날 뿐 이로운 것이 전혀 없다는 반개혁적 태도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서 반성과 개혁 없는 검찰을 역사적 전노재판의 수행 주제로 삼고 있는 데서 오는 필연적 귀결이다. 특별검사제의 도입과 대표적 정치검사의 숙정등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절박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지적해야 할 이번 재판의 한계는 전, 노씨에 대한 증거성고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들의 내란 성공과 집권연장을 위해 이들에게 견마지르(犬馬之勞)를 다했던 5, 6공 권부실세들이 그대로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이들은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여 물밑에서 꾸준히 전, 노씨에 대한 사법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사실 이들의 전, 노씨 사법요구는 일종의 자기사법요구로서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5, 6공 권부실세들은 최근의 한총련 사태 이후 부쩍 보수화, 공안화된 사회 분위기를 타고 한층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중이다. 곧 재개될 전노재판 전, 노씨의 사법에 필요한 최종 요식절차로 전락하지 않고 전, 노씨와 그 후수인들의 인권유린범죄를 다스리는 법적 토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 사설

### '한총련' 시비 벗어나자

뜨거운 여름이 지나갔다. 초가을로 접어드는 햇빛은 열매들을 무르익게 하기에 알맞다. 대학가도 개강 첫머리의 어수선함과 분주함이 가라앉고 있으며, 도서관 앞에 머리를 식힐 겸 나와앉아 담소를 나누는 학생들의 모습이 차분하게 보인다.

그러나 한편에선 여전히 한총련 여파가 잦아들지 않는 듯 싶다. 거듭된 대학 압수수색, 범민대회장자지 농성투쟁의 거점이 되어 폐허가 된 대학건물이 한총련의 과격폭력성을 알려내는 교육장이 되어 시찰행렬이 줄을 잇고 있으며, 한총련 관련 보도내용으로 인한 대학신문의 배포중지와 대학신문에 대한 이적성여부 수사, 시위경력자의 취업불이익 방침, 불법대자보의 강제철거 등 각종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다. 한총련의 용공이적성을 철저히 제거, 발본색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여기서 한총련의 조직핵심의 성격에 대해서는 당국의 사법적 판단에 맡기더라도, 각 대학의 자치기구가 온통 불법적 조직으로 치부되고 분쇄 와해의 대상으로 지목되는 일은 안타까운 일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대학총학생회기 정부당국의 여러 국기경엄법과 내용에 대한 부정적인 투쟁을 벌여왔고, 또 학내로는 소위 학원자주화투쟁으로 미움을 받아온 터이라, 이쯤에서 학생들이 조직적으로 벌이는 일이 없도록 단단히 재갈을 물리겠다는 정부당국과 학교당국의 합작적 의도가 너무 두드러지는 일이 아닌지 묻고 싶다.

어쨌거나 한총련은 대중적 지지기반의 상실과 폭력적 투쟁에 대한 자기비판을 내놓았고, 스스로 학생운동조직 전반에 대한 반성과 비판, 그리고 대안 모색에 골몰하는 것으로 인다. 청년학도들이 순수한 열정과 학문적 이상이 결합한 이상사회구현의 꿈으로서의 운동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진다. 학생운동을 이끌어온 지도부는 지난날 선배들이 구축해온 반독재민주사회회복의 투쟁의 전통을 되새기면서, 급변 움직이적시비에 휘말리게된 전후사정에 대해 책임감을 통감해야 한다. 사회전반적으로 논쟁을 받고 있는 '한총련'의 그늘을 벗고 진정한 학우대중의 성원과 사회적 기대와 사랑을 구하는 참다운 힘의 학생운동조직과 자치기구가 건설되어야 한다.

정부당국도 옥석구분에 보다 신중을 가지고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다시한번 인내심있는 선도와 설득의 지혜를 베풀 수 있어야 한다. 소탕의 작전에 급급하지 말고, 개전과 자기변신에의 유도를 포기하지 말기 바란다.

학교당국도 이윤치 저논치 두리번거리거나 말쑥구기며 별주고 목자는 일에 알다투듯이 나설 일만은 아니다. 구속학생이 정상참작으로 대학으로 돌아와 면학에 매진할 기회를 가능한 부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들뜬 분위기를 정리하고 '한총련' 시비에서 벗어나자. 내일의 계절이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지 않은가.

### ◆ 노사개혁위원회 진행상황 및 전망

## 개혁 허울속에 노사관행 되풀이

### 정부 노개위 역할 무시하는 일방통보 자제해야

대통령의 직속 자문기관이라 관심이 모아졌던 노사개혁위원회(이하 노개위)가 당면과제인 노동법 개정 등 둘러싸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4월 14일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실명제, 부당산 실명제 등의 변화와 개혁 바람을 산업현장에도 불려 일으키겠다는 의지로 '21세기 신노사 관계 5원칙'을 주 내용으로 한 '신노사 관계 구상'을 발표했다.

이는 WTO체제 출범과 코앞에 닥친 OECD가입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 ILO등의 국제적 압력과 민주노총으로 의화된 국내 민주노동 진영의 강화등을 불가피한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출범한 노개위는 3분과로 나뉘어, 제1분과는 노사관계 개혁의 비전, 노사의 식 및 관행개선을 위한 개혁과제와 추진방향을, 제2분과는 노동관계법제도 개선의 기본원칙과 방향, 노동관계법·제도 개혁의 과제와 추진방향을, 제3분과는 공공부문 및 노동행정 핵심 과제와 추진방향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럴듯한 구성체제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가닥을 잡지 못했던 노개위는 여러가지 문제를 낳을 수 밖에 없었다. 첫번째로 노개위측의 구성원들에 대한 문제다. 현재 노개위의 구성비율은 노사 공익인

각계학자, 노·사측으로 이뤄졌다. 분명 노·사측은 그들의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 단지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공익측이다. 이런구조에서 노동자측과 사용자측 모두를 만족시킬만한 개정이 과연 나올까 하는 우려를 지을 수 없다.

둘째로 노·사의 공감대 형성 여부이다. 노개위에 참가하고 있는 노사 대표들이 어느정도 선에서 서로 공감을 하더라도 각자조직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합의를 기피할 수도 있어 양자의 합의 도출은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개정에서 공무원 교사의 노동3권을 비롯한 노동기본권의

완전한 보장에 대해서는 사용자측이 반대주장을 펴고있고 사용자측이 요구하는 변형근로 시간제,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등에 대해서는 노조측이 완강한 거부자세를 보인다라는 것이다.

셋째 노개위의 역할과 위상의 문제다. 노개위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부는 이를 무시한채 지난 2월 근로자 파견제, 정리해고제 등의 민감한 부분을 도입하겠다고 일방통보해 노개위가 제역할을 못한다는 것을 보여 왔다.

한편, 지난 6월 노개위는 지금까지의 여론을 최종수렴하기위해 중

립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서도 여전히 각계 조직대표들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할증임금률, 복수노조의 허용범위, 산전산후 휴가의 개선방안 등 기타 쟁점사항을 놓고 첨예한 시각차를 보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절망적인 것은 아니다. 노개위 6차회의에서는 소위원회 구성방안과 관련해 노사 모두가 만족할 만한 안이 마련되기도 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적용확대나 법정근로시간 단계적 단축, 부작용방지장치와 함께 변형근로제 도입등도 합의점에 도달하고 있다.

앞으로 노개위는 이제까지의 여론수렴을 바탕으로 내부 회의를 거친 뒤 청와대에 보고를 올릴 계획이다.

더이상 노사관계개선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노개위가 밝힌 노동관계법 개선 방향은 노동법개정작업의 원칙이 될 뿐만아니라 노사관행과 노동행정을 직접 규율한다는 것을 간파해선 안된다.

(조인선 기자)

합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서도 여전히 각계 조직대표들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할증임금률, 복수노조의 허용범위, 산전산후 휴가의 개선방안 등 기타 쟁점사항을 놓고 첨예한 시각차를 보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절망적인 것은 아니다. 노개위 6차회의에서는 소위원회 구성방안과 관련해 노사 모두가 만족할 만한 안이 마련되기도 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적용확대나 법정근로시간 단계적 단축, 부작용방지장치와 함께 변형근로제 도입등도 합의점에 도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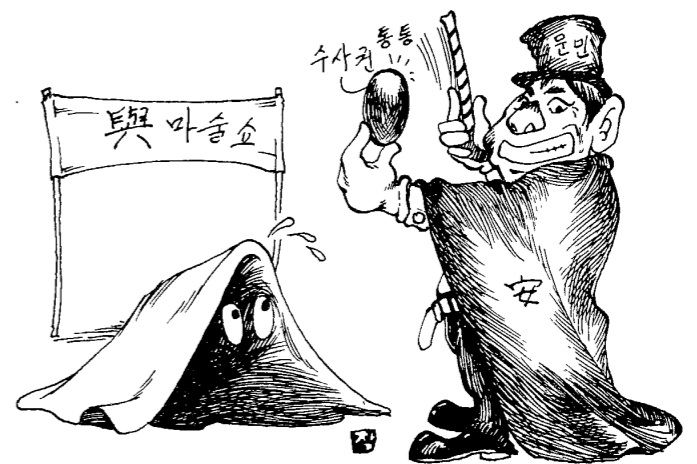
앞으로 노개위는 이제까지의 여론수렴을 바탕으로 내부 회의를 거친 뒤 청와대에 보고를 올릴 계획이다.

더이상 노사관계개선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노개위가 밝힌 노동관계법 개선 방향은 노동법개정작업의 원칙이 될 뿐만아니라 노사관행과 노동행정을 직접 규율한다는 것을 간파해선 안된다.

(조인선 기자)

## 풍국판정

고대성



# 기술휴머니스트-쌍용

"인간을 위해 대안 기술이  
이제는 지구와 인간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술은 인간을 위한 존재하는 것  
최후의 기술, 그것은 인간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



스티븐 호킹 박사는  
1963년 루게릭병으로  
2년의 시한부 삶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불굴의 의지로 죽음과 장애를 극복  
지금도 우주의 신비에 가장 근접한 세계 제1의  
천체 물리학자로 인정받고 있다.

### 인간을 위한 기초기술 개발, 쌍용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첨단산업.  
그 뿌리인 기초과학 기술 연구 개발이 바로 '큰 기업'의  
할 일입니다. 기술 개발이 가져다 줄 편리함 못지 않게,  
그 기술이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깊이있게

생각하는 것 또한 '큰 기업'의 할 일입니다.  
기술은 오직 인간을 위해 개발되고 사용되어야 한다는  
'기술휴머니즘' 정신으로 쌍용은 기초과학 기술의 발전에  
모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 중구 노점상 강제철거

# “왜 전노련 소속만...” 차별성에 문제 제기

## 소외계층 탄압 우려속 풀리지 않는 의문 남아

중구청(청장=김동일)은 지난 3, 4일 이틀간 서울 정계전 8가 삼일아파트 앞 인도에서 직면 1백명과 경찰 2개중대 3백명 등을 동원하여 노점상들에 대한 강제철거를 실시, 25톤트럭 4대를 압수했다.

중구청 건설관리과 김인수씨는 이번 철거에 대해 “노점상들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있었고 그에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경위를 설명하고, “노점상들에게 가만대를 임대하는 등 여러 대안을 마련해 왔지만 그 수는 끊임없이 늘고 있어 단속을 하지 않으면 거리는 노점상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말했다.

철거당한 노점상인들은 항의방문을 통해 빼앗긴 물건을 되찾긴 했지만 철거가 전국노점상연합회(이하 전노련)소속 상인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실시된대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문제가 된 삼일아파트 20동 아래쪽은 전노련 소속 노점상 있고 19동 위쪽은 비소속이었는데 철거는 아래쪽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그쪽이 특히 민원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번 강제 철거는 여러 면에서 의문을 남기고 있다.

보고 총학생회 연대사업국장인 이번 사건이 최근 벌어지는 학생운동 탄압과 무관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그간 노점상인,

철거민, 농민,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생존권 투쟁에 큰 힘이 되어온 학생운동이 지난 8월 연세대 사건 이후 위축된 틈을 타 소외계층에 대한 탄압도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게 그의 견해다. 또 30년을 살아오던 땅이 사유지로 변경했다는 이유로 변상금까지 물며 강제철거당할 위기에 있는 반포2동의 53세대 주민들을 일례로 들며 “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각종 학교 상황이 안 좋아 현재 속수무책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의 경우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판단이다. 그러나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같은 노점상임에도 불구하고 “왜 차별적으로 강제철거를 실시했느냐”는 점이다.

전국노점상 중구 연합회 홍경희 사무국장은 “비소속 상인들이 최근 전노련에 가입할 뜻을 전해왔다”며 “분열을 목적으로 차별적인 강제 철거가 이루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 비소속 노점상인들이 92년 대선과 95년 지자체 선거에서 신한국당을 지지했다는 점에서 의문은 지워지지 않는다. 현 김동일 중구청장은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이기 때문이다.

물론 전노련이 국민회의를 지지하는 단체는 아니지만 현 정부(여당)에 대해 곱



◇ 철거당한 후 빼앗긴 물건을 되찾아 다시 노점을 벌이고 있는 문제의 삼일아파트 20동 앞.

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에따라 국민회의는 반사이익을 조금이나마 얻은 게 사실이다. 전노련은 단순히 노점상인들만의 이익추구에만 국한되지 않고 민주노총, 농민회, 전국철거기연맹회 등과의 연대를 통해 도시민민 및 소외계층을 위해 힘쓰는 한편 통일운동에도 관심을 보이며 활발한 사회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런 전노련에 대해 중구청은 직접적인 탄압을 가했고 전노련은 ‘도시민민 다 죽어

는 새정치 국민회의 김동일 구청장 즉각 퇴진하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작성·배포했다.

전노련 소속 노점상 강제철거에 대한 자세한 내막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중구청 건물에 걸려있던 ‘서울시 신청사 중구에서 유치하자’는 내용의 대형 플래카드만 인상 깊게 남을 뿐이다.

(김희동 기자)

사회단신

‘미, 이라크 공격’비난 드세

미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 비핵금지구역 내부 쿠르드군 거점지역에 전격공격을 감행한 이라크군에 대한 보복조치로 지난 4일, 5일에 걸쳐 미사일 공격을 실행했고 재차 공격이 시도되고 있다. 미국의 이번 이라크 공격에 대해 국제사회는 여러가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이라크 후세인 정권도 강력대응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서방동맹국 중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정도만이 미국의 처사에 지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묵과하는 지지경도에 그치고 있다. 반면 프랑스, 러시아, 중국은 노골적인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이라크 공격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688호도 그 정당성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라크군이 금지지역을 침공했다 할지라도 결점정중 종결직후 결의안 결의안에는 구체적인 응징에 대한 규정이 담겨있지 않으며, 비행금지 구역 자체도 이라크 영공권을 지나치게 침범한 처사라는 것과 국제적 합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줄

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측의 이라크 침공으로 제2의 걸프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높다.

안기부법개정 야권반발

지난 3일 신한국당이 안기부의 대공수사권 확대방안 논의 방침을 발표해 야권의 반발을 사고있다.

신한국당이 마련중인 개정안은 안기부법 개정시 폐지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고부, 이적단체 구성, 이적단체 표현물 제작, 불고지죄 등에 관한 것이다.

국민회의의 경우 “민주화에 역행하는 개혁이며 민주주의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행위”라고 비난했으며, 자민련은 “신한국당이 2년전 안기부법 개정 당시 삭제했던 이적표현물제작 등 일부 사항에 대한 수사권을 부활하겠다는 것은 법의 안정성 확보라는 면에서 전혀 신중치 못한 발상”이라며 이번 개정을 반대했다.

이에 여론은 “한층 심대나 감습수사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대공수사권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문제는 개정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국회제도 개선특위에서 논의될 것이다.

(사회부)

◇ 미국대선과 한반도 정세

# 공화, ‘힘의 평화’·민주, ‘타협통한 개입’표방

## 양당 한반도 분단유지 정책기조 변함없어

이 철기

법정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미국 대통령선거가 오는 12월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기 전당대회를 통해 대통령후보를 확정함으로써 미국 전역은 점차 선거열기로 뜨거워지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우리에게도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선거 결과에 따라 한반도정세 및 남북한 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화당이 ‘힘을 통한 평화’를 명분으로 대북한 강경정책을 표방함에 따라,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 한반도는 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이전과 같은 전경위기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8월 전당대회를 통해 나타난 민주·공화 양당의 대북한 정책은 문제를 대한 접근 방법과 관련된 좋은 대조를 보인다. 물론 대외정책에 있어서 ‘개입주의’로 표현되는 미국의 패권주의정책은 민주 공화 양당의 정강정책속에서 공통으로 내재되어 있다. 외교적 압력과 지속적인 군사적 개입을 통해 ‘세계유일의 패권국가’로서 미국의

전세계적인 영향력과 리더십을 유지한다는 ‘패권주의’는 여전히 움직일 수 없는 미국 대외정책의 기조로서 굳건히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개입의 방법과 관련해 양당의 정강정책은 큰 차이를 보인다. 민주당의 정책이 타협과 협상을 중시 ‘자유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비해, 공화당의 정책은 과거 힘의 사용을 중시하던 레이건과 부시 행정부하의 ‘현실주의’를 계승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같이 상반된 경향은 대북한 정책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클린턴 대통령의 민주당정권은 힘의 사용 보다는 타협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과 대북한 정책에서도 극명히 드러난 바 있다.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한 유화정책이 이끌어낸 가시적 성과들이 바로 94년 10월21일 제네바에서 북미간에 서명한 ‘북미 기본합의문’이다. 북한핵의 동결과 함께 대북 경수로 지원과 북미 관계개선 및 수교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는 북미 기본합의문은 북한을 ‘연착륙’시키는데 주요안점을 두고 있다. 북미 기본합의문은 현재 한반도문제 해결의 기본을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북한 핵문제와 북미 수교는 이 합의문상의 일점에 따라 진행중이다. 이번 민주당 전

당대회에서 나타난 대북한정책 역시 기존 정책의 유지를 그 골간으로 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힘을 바탕으로 한 대북한 강경대응을 전경하고 나선에 따라 한반도문제와 관련해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밥 돌 공화당 후보는 전당대회연설을 통해, 북한에 대한 중유 제공과 경수로 건설 지원의 중단을 선언했다. 공화당은 또 실종미군 및 정점포로에 대해 완전히 협력할 경우에만 북한과 추가적인 관계개선에 새로운 조건을 달고 나섰다.

그러나 하면 북한을 이라크·시리아·수단·쿠바와 함께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 시킴으로써 북미 관계개선에 새로운 장애를 조성할 여지를 남겼다.

북한에 대한 중유 제공과 경수로 건설 지원의 중단, 그리고 북미 관계개선에 새로운 조건 제시는 사실상 북미 기본합의문을 파기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유 제공과 경수로 건설지원 그리고 북미 관계개선은 북한이 핵개발을 동결하는 댓가로 미국이 준수해야할 북미 기본합의문상의 의무사항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공화당의 대북한정책이 현실화 된다면, 이것은 한반도상황이 94년 10월 북미 기본합의문이전으로 다시 돌아갈을 뜻한

다. 이는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정세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 분명하다. 북한의 핵개발 위협과 미국의 ‘전쟁 불사론’이 재현되고, 한반도 주변정세는 재차 냉전의 질곡에 빠져들 것이다. 한반도에는 다시 전선이 감돌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대선은 그 결과에 따라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정세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여지를 안고 있다. 한국과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의 국내정치 상황과 정책의 동향에 따라 한반도에는 전쟁과 평화, 긴장과 화해의 모습이 얼마든지 교차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한반도문제에 대한 발언권 확보와 대미관계의 자주화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도 절실한 과제인가를 다시 한번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차라리 클린턴이 낫다”는 자조에 빠져있기 보다는, 대미 정책 및 대미관계를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속적인 개입을 통해 한반도에서 독립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패권주의와 한반도의 분단을 지속시키려는 한반도 현상유지정책은 어느 정당이 집권하건 상관없이 미국의 한반도정책 기조로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한반도문제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서 철저한 소외당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대미종속관계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한국은 여전히 한반도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상실한 채 미국의 입김에 계속해서 놀아날 수 밖에 없다. 이제 우리의 독자적인 정책을 가져야 한다. 그 출발점은 냉전적인 대북대결의식과 맹목적인 대미사대주의의 탈피에 있다.

등약로

경마장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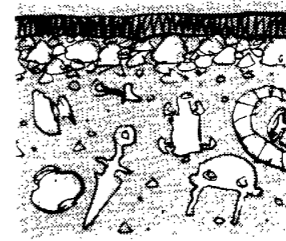
지난 3일 경마장 부지로 선정된 경주시 속곡동 들머리를 찾았다.

사람의 흔적이 없고 시골하는 동안 사육용 콘크리트 2대에 서 밖에 찾아볼수 없었다. 무성한 풀들과 나무로 가려져 있어 문화재의 존재여부는 알수 없었다.

이 지역은 유물 발견으로 경주문화재 연구소가 1백49일 동안 시굴작업을 실시해 지난달 30일 문화재 관리국이 발굴허가를 내렸다. 경마장 부지매입을 적극지지하고 있는 속곡마을 한 주민은 “경마장건설에 마을사람 대다수가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세계적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보문단지과 불과 2.5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이곳은 경마장건설 후 또 하나의 관광특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신라천년의 도시인 경주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유물이 산재해 있어 경마장건설로 뒤따를 여러 공사시 또다른 문제점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경마장 부지에서 발견된 유물은 청동기에서 조선시대의 것으로 발굴허가는 난 상태이지만 경마장을 건설하는



것은 경부고속전철 건설과 마찬가지로 문화재 파기가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라며 학회와 대학측에서는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신라를 대표할 만한 특색문화재가 부족한 경주의 현실을 지적하며 고고학 관계자는 “이번에 발견된 문화재 중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가마터는 신라의 경제를 한눈에 보여주는 유적”이라며 발굴작업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경마장이 들어서면 시민들의 사생활을 조장할 뿐만아니라 인근지역의 교통난과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는 한결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마장이 운영되면서 남는 이익은 또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갈지...” 경주시민의 투쟁적인 한숨 뒤에 잔잔한 시골분위기의 속곡마을과 경마로 희비가 엇갈려 아비규환을 연상케하는 경마장의 모습이 겹쳐져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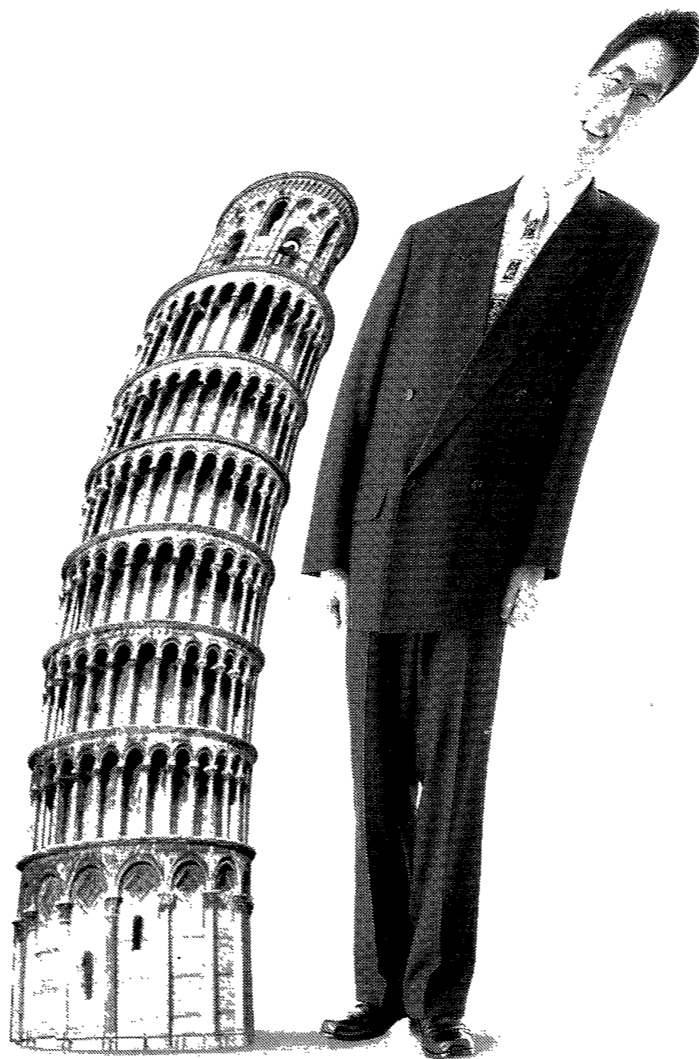
과연, 관광특구의 정의가 유력시설만을 말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성용 기자)

코오롱 국제화 추진전략 시리즈 1 - '국제화 전문가' 편

One & Only

Do in Rome as the Romans do!



코오롱은 세계 곳곳에 국제화 전문가를 파견하여 인재의 세계일류화를 실현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인이 됩시다!” 국제전문가를 향한 대장정에 오르는 젊은 코오롱인의 가슴이 뜨겁기만 합니다. 자기 분야의 내로라할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 나라의 언어와 풍습, 문화와 역사를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고 돌아오는 코오롱의 엘리트들. 코오롱은 전사원의 세계화를 이루기 위하여 국제화 전문가 해외파견, 사내/해외 MBA 교육, 신입사원 해외연수 등 다양하고 내실있는 세계화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역량을 다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강력한 리더로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국제전문가그룹- 코오롱. 세계를 공략할 당신의 베이스캠프입니다!



### 교수저서 소개

#### 96년 1학기 출간 저서 일람

이번호에서는 왕성한 저술활동을 펼친 교수들의 최근 출간 저서를 소개한다.

이번 조사는 방중 출판 저서를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본사에서 파악한 저서 1차분만을 소개했으므로 일부 누락되었을 수 있음을 밝힌다. 추후 지속적으로 저서안내·서평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편집자)

△홍명희-어느 민족주의자의 생애 = 홍기삼(국문학) 우리의 문화적 전통을 서양문화의 영향으로 대체시키지 않고 우리의 정조, 정서, 사상, 풍습 등 전통계승의 미학적 전법을 다룬 작가 홍명희의 일대기. 건대출판부

△과학과 불교=김용정(철학) 현대 과학의 세계상과 불교의 교리를 접목시켜 놓은 책. 석림출판사

△과학과 철학=김용정(철학) 인식론적, 윤리적, 동양철학적 입장에서 현대과학을 조명. 범양사출판부

△칸트철학연구=김용정(철학) 칸트의 인식론과 도덕철학을 통합하면서 형이상학 부분을 보강. 서광사

△지배와 이성=황태연(정치외교학) 소유권 중심의 맑시즘을 재해석한 '논쟁적 글읽기', 자본주의 현실분석이 돋보이는 책. 창작과 비평

△절반의 경험 절반의 목소리=조은(사회학) 여성정책 뿐 아니라 현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의 내용이 실려 있다. 변화하는 사회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획·출판. 미래미디어

△수출입무역 서한사례=전창원(무역학) 수출에서 수입이 완료될 때까지의 한국업자와 외국업자와의 상호 교환에 필요한 서류, 팩스, 서한, 전보 등의 작성요령이 실려 있다. 무역연구원

△경영정보시스템=이영재(정보관리학)의 공저 정보관리학과 기초영역에 대한 기초지식과 실무사례를 실음. 정지사

△석유화학공업=이희수(화학공학)의 편저. 석유화학 원료로부터 석유화학제품의 생산과정, 원가분석, 시장현황등을 총망라. 화학경제 연구원

△현대소설의 이해=한용환(국어교육) 문학사상사

△환경과 사회=권동희(지리교육) 환경문제 발생원인과 그 해결방안 모색. 환경과 사회라는 강의를 맡으면서 그동안 연구했던 내용을 재구성. 신라

### ◇서평-문학사와 문학비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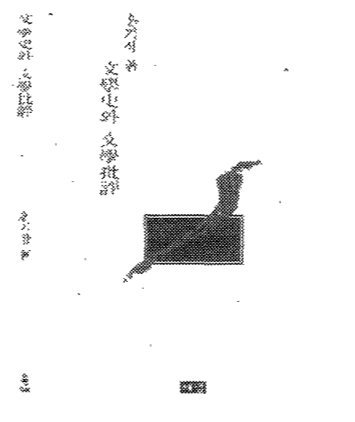
#### 역사적 관심·비평적 감각의 공존 '홍명희의 생애와 문학'에 잘 드러나

'문학사와 문학비평'은 그 제목이 시사하듯이 문학에 대한 역사적 관심과 비평적 감각이 사이좋게 동거하고 있는 저서이다. 저자 홍기삼 교수는 지난 20여년 동안 한국 현대문학사 연구를 지도해왔으며, '문학사의 기술과 이해' 등의 저서를 통해 문학사론의 입단을 보여준 바 있었다. 저자는 또한 문단에서 경력 30년이 넘도록 현역인, 소수의 중진 평론가 중의 한 사람이기도 하다. 이러한 저자의 이력과 성과를 감안하면 역사적 관심과 비평적 감각의 공존이 이번 저서에 두드러진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닐 것이다.

문학사와 문학비평은 어찌 보면 대립하기 쉬운 별개의 영역이다. 문학사는 문학의 사실을 근본적으로 회고적인 방식으로 발견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그것의 목표는 역사적 시간 속에서 문학의 사실들이 이루는 연관의 논리를 찾아내는 일이다. 반면에 문학비평은 문학의 통시적 질서에서 별로 관심이 없다.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문학 텍스트들의 해석과 평가이며, 당대의 문학 공중의 취향이나 이념을 통해 하려는 의지이다. 이처럼 서로 반목하기 십상인 역사와 비평이 '문학사와 문학비평'에서는 종종 행복한 화학적 융합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항간에 흔한 현상비평

류의 글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힘든 미덕이다. 이번 저서에서 저자의 미덕이 돋보이는 글로는 예컨대 '홍명희의 생애와 문학'을 들 수 있다. 홍명희는 알다시피 역사소설 '임꺽정'의 저자이다. 그러나 그에겐 '임꺽정'외에는 이렇다할 저작이 없고, 전기 자료도 소략해서 그의 문학과 인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많은 곤란이 따른다. 그러나 저자는 번다한 수고를 자칭하여 홍명희의 행적을 꼼꼼히 확인했으며, 민족주의자로서의 그의 생애를 조리있게 재구성했다. 또한 '임꺽정'에서는 전통단절의 극복이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그 소설의 문체와 서술의 특징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거기에 담긴 민족주의적 함축을 읽어내 균형잡힌 작품론의 방향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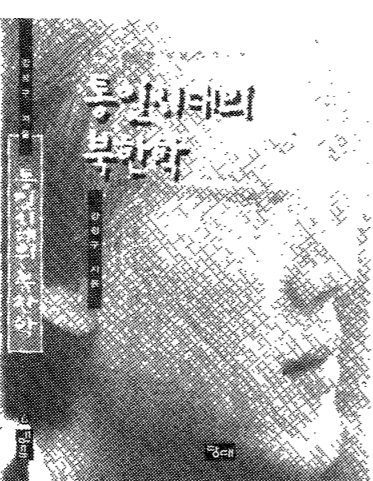
홍명희론에 이미 드러난 바지만, 저자는 한국문학의 아이덴티티를 나름대로 가정하고 있으며, 그 역사적 표현들에 개별한 예정을 표시한다. 한국 근·현대문학이 전근대 문학 전통과 연관을 맺음으로써 스스로 동일성을 회복하게 되는 계기들이 저자에게는 특히 중요한 관심사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문학의 민족적 동일성에 대한 저자의 믿음은 해와 고된 문학



저 자:홍기삼(국문학)교수  
출판사:해냄

을 한국문학에 포함시키려는 대담한 발상을 날기도 한다. 저자가 제안한 '한국문학관'이라는 개념은 분열, 대립, 단절의 관념이 승화된 기존 한국문학론의 범패에 대한 일종의 시뮬적 항재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저자는 전체적으로 신중하면서도 논조를 떨치면서도 야심적인 주장을 곳곳에 감춰두고 있다. 발상의 전환에 목마른 국문학도나 문학비평가라면 저자의 논의에 담긴 풍부한 자극을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다.

황 중 언  
(문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저 자:강장구(사회학)교수  
출판사:담대

우리시대 북한·농민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로 등장한 지금, 강장구 교수가 '통일시대의 북한학-민족중심적 이해'를 위하여 펴냈다. 크게 보아 지난 3월 펴낸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가 분단, 전쟁, 외세 등을 과거의 문제에서 현재의 문제로 등장시킨 것이었다면, 이 책은 북한·통일문제의 현실과 통일시대의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시대의 북한학'은 강교수가 이제까지의 연구작업의 큰 틀을 일단 마무리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연구작업 전반에서 포착할 수 있는 믿음은 '민족 중심적 이해'이다. 그는 우

### ◇서평-통일시대의 북한학

#### 통일국가 체제 설계에 밑거름 제공 분단 극복토대는 '민족 중심적 이해'

리 자신의 지적 정체성과 민족의 자기 지체도를 찾는 여정을 '민족중심적 이해'에서 출발하고 있다. 분단 극복없이, 한반도 근대적 민족국가를 건설하지 못한 채 '세계국가', '지구촌화'의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도 역시 '민족'의 자기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민족의 해체를 주장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일관되게 흐르는 그의 신념이다.

내용으로 들어가 보자. 이 책은 강교수가 학회지, 심포지움 등에서 이미 발표한 북한·통일 논문들을 모은 것이다. 크게 제 1부 '통일시대의 북한학-연구방법론과 북한의 현실'과 제2부 '통일시대의 민족관-민족중심적 시각에서', 그리고 '늦깎이'의 삶을 돌아본 연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통일시대의 북한학은 북한 사회의 이해 방법, 북한 연구자의 지식사회학적 검토 등 북한 연구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주체사상의 사회정책적 구현, 현재 북한의 허와 실, 민족적 시각에서 본 북한학 문제 등을 실고 있다.

다음으로 통일시대의 민족관계는 통일시대의 대안체제를 모색한 '민족과 통일', 통일지향적 역사인식을 위한 대북제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 통일시대의 한일관계 등을 실고 있다. 이중 특히 주목할 만한 논문은 '민족과 통일'이다. 이 논문이 현실에 적합한 통일국가의 체제를 구상하는 문제의식 아래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민족공동체 형성의 접근법으로 '주(主) 연방주의 보(補) 기능주의 접합전략'을, 통일국가의 정치체제로 '유고식' 자주관료제와 시민주의의 접합'을 제안하고 있다. 이 제안은 동양의 여부를 떠나 다양한 논쟁의 과정에서 다듬어져 통일국가의 상을 설계하는 데 기여하게 쓰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보를 대신한 '늦깎이의 삶'은 인간 강경주의 삶이란 낡고 그 내면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자칫 흥미거리로 읽을 수 있으나, 오늘을 사는 지식 청년들에게 진솔한 삶의 아름다움과 고민을 동시에 던져줄 것이다. 논문쓰던 시절의 학문적 열정과 집착을 확인하기 위해 도미한 그가, 돌아와 보여줄 '학문적 실력'을 기다린다.

김 용 현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 ◇미시간 주립대 행정 연수기

#### 기금 조성 위해 치밀한 전략 필요 민원조정관·도서구입비 상향조정 제안

직원의 행정연수가 작년 메인주립대에 이어 올해 미시간 주립대(MSU)에서 7월1일부터 20일까지 3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본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미시간 주립대는 올봄부터 제도등의 운영으로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인 학교운영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편집자)

올해 직원들의 연수가 실시된 미시간 주립대는 오랜 역사와 전통, 효율적인 행정관리, 아름다운 캠퍼스 등으로 미국에서도 우수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반 행정조직 MSU의 일반 행정조직은 대학 본부, 단과대학 및 학과가 분권화되어 자체적인 책임하에 경영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교육이 학과장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각 학과는 학과장 중심하에 교수진들이 학과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각 행정실무자는 자신의 업무영역에 절대적 책임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다. 이는 대학이 수업료, 주 정부지원 재정 등의 수입에서 각 학과에 지원을 크게 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과교수들은 산학공동체에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받아 학과를 육성해야 하며 학과의 대외적 신뢰도가 곧 학과의 존폐까지 이어진다. 이렇듯 각 학과는 학과장 회의에서 학과의 교수인용, 재정, 교과과정, 학생상담 등의 문제까지 결정한다. 이는 중앙부서의 지원만 기대하고 학과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과로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다.

학과와 특성화에 따른 운영방식에 따라 이 대학에서는 위임전결사항이 분명하다. 자신의 업무분야에 과실이 있을 경우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하에 보직을 사직해야 하는 이 정책은 자율적 운영속에 엄격한 책임을 부여한다. 대학의 전구원들이 자기의 업무에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운영방법으로 고려할만 하겠다.

대학행정 체제내에서 눈여겨 볼 사항은 각 부서를 소개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비치되어 있어 누구나 해당부서의 역할과 업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학내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고충처리를 위해 민원조정관(올부즈맨 제도)을 두고 있는 것과 연관지어 볼 수 있겠다.

◇기금조성 현재 본교에서는 개교1백주년기념 발전기금사업 추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대학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기금조성부분에서 방시적인 면 혹은 적용할 부분에 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학과의 교수들이나 대학본부에서는 외부의 돈을 학교에 유치하기 위해서 세부적이고 치밀한 전략을 세워 기금사업 또는 동문들을 상대로 기금을 조성한다고 한다. 기부 대상에 대한 신상을 연구하여 그의 관심을 유발하고 기부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기부자에 대한 사후처

리 또한 잊지 않고 있다. 이러한 치밀한 전략을 통해 기금조성을 하고있는 것이다.

◇캠퍼스 시설관리 캠퍼스 시설관리면에 있어서는 4천여명의 학생들 중 1만2천여명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고 있다. 비용절감과 자신이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고용효과가 높다고 볼 수 있었지만 거대 인공효능에 있어서 세부적인 부분은 조정하기 힘든 면이 있다.

이런 행정적인 부분외에 MSU는 자연친화적, 캠퍼스관리와 장애자들의 캠퍼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각종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학생처 구체적인 행정부서를 살펴보면 있어서 우선 학생처는 학사행정 처리에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총학생회 및 산하단체가 각종 위원회 자격으로 학사행정에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의견결은 없다. 학생처는 또한 학생업무를 지원·상당하는 차원을 넘어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학생을 길러내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간부와 일반학생을 연수시킨다. 학생처의 학생운영방법과 지도자적 인격자 양상을 학교가 전문적으로 교육시키고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본받을만 하다.

◇도서관 학교전체예산의 4%를 차지하고 있는 도서관은 도서관장 아래 5명의 부관장이 있어 총 2백75명의 인원이 각 부서별로 업무를 수행한다. 자료검색은 주로 M.A.G.I.C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도서관내에 있는 터미널은 물론 교내에 있는 모든 터미널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도서관에서 소장하지 못한 자료는 Inter-Library Loan을 통해 검색할 수 있고 도서관 홈페이지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공학관에 위치한 Engineering Library의 경우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따로 설치되어 있으며 공학전문 사서의 배치, 특별검색기구 등으로 본교와 차별성을 갖는다.

이런 연수를 통해 김중철 중앙도서관 수서서무계장은 △이용자 중심의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일일 열람실 축소 △전산화의 완성 △도서구입비 증액 △사서의 재교육 강화 △학생처와의 협동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연수결과 직원들은 국제적 안목과 선진 행정기법을 직접 체험했다는 면에서 큰 만족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연수 보고에 따른 개선 방안제언에 있어서는 본교실정을 감안한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부분이 부족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이번 연수에 대해 직원들은 행정 및 제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할 것과 충분한 사전교육을 통해 연수의 효과를 높여야 하며, 인원을 줄이고 연수시 특정 주제를 부여하여 그에 대한 집중분석이 따라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리=고지은 기자)

S대 경영학과 2학년 한동민  
내가 만약 LG산전의 사장이 된다면...

“캠퍼스에  
꿈의 자동판매기를 기증하겠다.”

뛰는 생각과 깨는 아이디어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곳 - LG산전은 젊은 기업입니다.

“이게 과연 뭐냐? 그저 꿈이 아닐까?”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것일수록 도전해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젊음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젊은 꿈들이 빛나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곳 - 바로 우리나라 산업용 전자·전자 산업을 이끌어 온 LG산전입니다. LG산전의 크고 다양한 사업분야는 젊은이들의 상상력과 패기를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 전력기기·설비 사업
- 발달염비 사업
- 제어기기 사업
- 자동화 시스템 사업
- 서비스 산업기기 사업

### 동학의 성 담론화

◇ 동성애자 모임 제안  
“우리의 사랑은 당당하다”

동학여성 여름호에 눈길을 끄는 광고가 실렸다. '우리의 사랑은 당당하다'라는 동성애자 모임을 제안하는 광고로, 이 모임이 결성된다면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건국대, 충북대, 국민대에 이어 7번째로 대학내 동성애자 모임이 분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지난 5일 밤 11시30분부터 2시간여 동안 모임의 제안자인 박재준(가명)씨를 전화로 인터뷰해 '결성경위'등을 들어 보았다. 그의 신분상, 사진과 본명을 게재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

- 동성애자 모임을 결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 본교 동성애자에게 힘을 주고 싶다. 한국에서, 동성애자는 자신의 동성애 성향이 어쩔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증오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고려한다. 나와같은 고통을 느꼈을 그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인간인지를 알려주고 싶다.

- 본교에서 파악되고 있는 동성애자의 현황은?

=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두명 있고, 그외에도 7명정도 알고 있다.

- 본교에서 동성애자 자리잡을 수 있을 것 같은가?

= 당장은 힘들겠지만 머지않아 우리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리라 믿는다.

- 모임의 가입자격은?

= 동성애자이고 동대구성원이면 모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호기심차원의 가입이라면 극구 반대한다.

- 앞으로의 계획은?

= 10월중에 총학생회와 함께 '동성애 바로보기'라는 대자보를 게시할 예정이다.

- 더 하고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 동성애자라는 이유때문에 평생 꾸어온 꿈도 포기해야만 했다. 자살도 수십번 고려해 보았다. 동성애는 '선택'과 '패락'의 차원이 아니다. 어느 누가 비이성적인 동성애를 선택했는가? 혹은 동성애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가 동성애자 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봐주길 바란다. 동성애의 사가 있는 분은 012-808-0373으로 연락해 주기를 바란다.

(한누리 기자)

## '억압받는 성' 탈출구 찾기 한창



Alternative Inside

근래들어 동학내에 '성'이라는 것을 이젠 밖으로 내어 놓고 얘기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이번 학기에 '성의 역사'라는 과목이 신설되었다. 이것은 아마도 '성'이라는 것을 숨기고 도외시 하는 현실에서 벗어나 이제는 학문을 통한 체계적 접근으로 '성'에 대한 편견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데 인식

◇ '성의 역사' 강의 인기

“이제는 자신있게 말하고파...”

학문으로 진지하게 만나 실제 확인

을 같이 한 것이라고 본다.

이 강의는 2개의 커다란 줄기로 이루어진다. 1부에서는 '성,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지금껏 진행되어온 성의 편견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인식하고, 2부에서는 '성과 사회의 이해'라는 주제로 사회의 관습과 도덕으로 인해 성이란 것이 어떻게 인식되고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 그리고 성과 사회의 어떤 모습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이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가 될 것이다.

중국사학과 사상사를 전공하면서 역사 속에서의 차별의 문제를 다뤄 보고 싶었다는 정대성 교수는 성이 억압되고 규제된 것은 국가권력의 지배 이데올로기 때문이라고 정의한다. 지배계급은 법률과 윤리, 도덕으로 1부1처적인 존엄성을 통해 세 금과세와 병역 등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피배계급에게 적용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용어의 문제도 있다. 'sex', 'sexuality', 'gender'라는 용어는 우리 말로는 모두 '성'으로 표기가 되지만 모두다 내포하고 있는 뜻이 다르다. 'sex'는 남성, 여성의 의미에서 성기, 또는 성교까지를 이르는 말이고 'sexuality'는 성에 대한 관념이나 의식, 'gender'는 성의 문화적 개념을 일컫는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단지 성을 단순화시킨 'sex'의 개념으로만 본다는 것이다.

이 강의의 특징은 평소 꺼려지고 그래서 꺼내놓고 말하지 못했던 말들이 자연스럽게 사용된다는 것이다. 1부 1차제를 '한 구멍주의(ONE HOLEISM)'라고 말하거나 러브호텔에서 섹스파트너 교체에 대한 얘기를 들을 등, 지금까지 숨겨지고 도외시되었던 용어와 표현들이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조금씩 조금씩 걸어나 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학생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강의를 듣는 김

선영(가정교육과 3)양은 “일단 '성의 역사'라는 과목이 흥미를 끌었고 아직은 강의 초보자라 딱딱하고 어렵다. 하지만 성이라는 것을 이제 금기시 하지 말고 담담히 꺼내어 놓고 얘기해야 할 때라 생각한다. 이 '성의 역사'라는 과목이 그러한 과정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강의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역시 단지 성에 대한 호기심에서 수강하는 학생들이 다수인 것으로 보여 조금은 아쉽기도 하다.

오월 섹스나 '한 구멍주의'등의 이런 얘기들을 밖으로 꺼내 놓은 것만이 성담론화는 아닐 것이다. 한때 왔다 지나가는 호기심에서 발현된 유행이 아닌 진심으로 성을 이해하려는 마음의 기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성의 역사'라는 과목이 그러한 것의 건강할 기초가 되어주기를 기대해 본다.

(김상만 기자)

◇ '삐딱이 대학' 페미니즘·성정치 강좌 개설

“모두가 동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요”

위압적 가부장제는 멀리멀리

“어렸을 때예요. 학교에서 돌아와 초인종을 눌렀는데 암마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정말 울고 싶더라고요. 엄마의 따뜻한 미소를 내심 바랬거든요. 이상하지 않아요? 행복=엄마의 미소라는 아이의 인식이요. 이걸 바꾸어 말하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엄마는 짝에 꼭 있어야 하고 울어서는 절대 안되죠. 또 가족의 행복은 여성만의 몫이 아닐텐데, '집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안해 할거구요”

지난 5일 서울총 총학생회(이하 총총)가 가서 임원들에게 '왜 페미니즘과 성정치에 집착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우둔한 질문인줄 알면서도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존의 총학생회의 활동에서 '성정치'와 '페미니즘'에 대한 그들의 의지를 충분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본교 최초로 마련되는 제2대학(삐딱이 대학)의 강좌로 페미니즘과 성정치를 또 개설했기 때문이다.



총학생회는 평범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왜곡된 성정치를 지적하기 위해 '삐딱이 대학'내 페미니즘·성정치 강좌를 개설했다.

페미니즘과 성정치에 대한 그들의 애착은 대단한 것이어서 당연히 이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었고 총학생회 부회장이 조윤숙양은 이렇게 얘기해 주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억압받고 있는 일은 부지기수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성애자와 남성 중심적인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불평등과 편견이 있었는지... 가까이 엄마의 경우를 예를 들어드리죠... 얼마나

이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지난 5월20일부터 3일간 독막골에서 개최한 '제1회 성문화제'. 성문화상을 공모해 시상하기도 하고, 동성애·페미니즘 영화를 상영해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총학생회 내부에서는 자신들의 성담론화 사업이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성문화제중 동성애 영화를 상영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호기심차원으로 구경 온거예요. 소외와 인권의 차원보다 쾌락적 행위에 더 관심을 두는거죠. 단지 부유주기의 행사보다 실질적 도움을 줄수 있는 강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 때 인식했어요. 삐딱이 대학의 '성정치·페미니즘'강좌는 그런 의미에서 마련된 거죠”

총학생회가 요즘 준비하고 있는 '성담론화'사업은 삐딱이 대학, 오는 16일부터 내달 23일까지 마련되는 '페미니즘·성정치'강좌를 위해, 변영주(낮은 목소리의 강독), 이정우(동성애자 인권운동협의회 회장),

### 달 하나 천장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일전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제목의 책을 읽은 적이 있다. 한 그루의 나무가 한 소년이 성장하면서 필요로 하는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마지막에는 줄기가 잘려 나간 쓸모 없는 그루터기까지도 노인이 된 소년이 철수 있는 형태로 자신을 바친다는 내용을 줄거리로 한 책이다.

어쩌면 여기서 소년은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모두(물론 예외도 있겠지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나름대로 생각해 본다.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견해 차이가 있겠지만, 요즘의 우리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위주의 그리고 자기 이익만을 내세우는 사고와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남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오만함과 과대망상을 가짐으로써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사회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또한 어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항상 본인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즉, 내가 어떤 일을 하고서 나에게 되돌아오는 반대급부는 무엇인가를 따져 조금이라도 손해가 날 것이라는 판단이 설 때면, 그 일의 일반적·사회적 중요성을 떠나서 발판자가 되어 나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라든지, 그리고 나에게 만약 어떤 지나 지나갈 때의 이익을 보지 않는다면 그 조직이나 사회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위협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태가 너무나 팽배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본인의 능력만큼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니, 그 이전에 진정능력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사회가 먼저 그들을 아끼고 받아들이 조직이나 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게끔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앞의 세 가지 경우와 같이 나에게, 나만이라는 사고를 가진다면 그것이 자칫 조직의 불협화음을 야기하거나 합리적이지만 못한 독선으로 흘러 번민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과 시련을 줄 수 있는 행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이 조직이나 사회를 위해 자신을 바친다고 하는 것들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진정 아낌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제 모든 사람을 짜증스럽게 하고 뜯겨 한 여름은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계절이 된 것 같다. 우리 모두 지금까지부터라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 보는 것이 어떨까? 진정 아낌없이 줄 때, 주는 것이 잃은 것이 아닌 곧 얻는 것이요, 또한 부처님의 이타행(利他行) 가르침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고 이를 실천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윤 화 영 생자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변리나(여성운동가)씨 등을 강사로 초빙했다.

“연애는 당연히 이성간의 것이라고 강요해온 이성에 중심주의를 냉철하게 바라보자는 성정치학 강좌, '육체에 대한 소유권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그것이 어떠한 성적 질서를 양산하는지를 알아보자'는 페미니즘 강좌, 과연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올

가? “공주 바가나(여성 성기)의 꿈'을 강연하는 변리나(매춘·AIDS·성폭력 피해 여성의 삶, 잡무의 대표)의 얘기에서 대체적인 강의의 성격

을 짐작해 본다. “남성이 여성에게 원하는 직업은 두가지입니다. 주부와 창녀. 그리고 이들 모두 남자에게 노예 이상은 되지 못해요. 남성이 여성을 배려하는 것은 단지 지배자의 덕목정도 밖에 안됩니다. 내 강의는 데이트, 결혼, 친구관계에서 남성지배적 성

적 질서를 보여줌으로써, 남학생에게 권 반성의 장을 제공하고 여학생에게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알려 줄겁니다”

반도체학과 1학년생인 한상훈 군은 지난 5일, 페미니즘과 성정치학 강좌를 최초로 신청했다. 그의 참가경위는 비교적 소박했으나 여성에게는 많은 부끄러움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억압받고 있는 사람이 내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더군요. 여성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문제인데도,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게 어디 큰 문제냐고 말해요. 남자들이 피해자라면 그걸요. 그런데 더 이해가 못하는 것은 여성들이예요. '여성의 억압문제'를 지적하면 가장 먼저 반박하는 이들은 여성들이예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면서...”

(한누리 기자)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 삼성

## 취업으로 가는 지름길 - 유니텔로 앞서가십시오

취업정보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지금, 유니텔로 오십시오. 1만 5천여개의 기업이 컴퓨터통신망에서 젊은 인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업정보고민, 이제 유니텔로 끝내십시오.

올 9월부터 12월까지 유니텔이 취업난 해결을 위해 취업엑스포 '96 행사를 펼칩니다.

취업을 앞둔 50여만 졸업예정자와 1만5천여 기업을 온라인 상에서 연결하는 취업엑스포 '96.

가고 싶은회사, 일하고 싶은 회사를 한 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시면 지금 유니텔로 가보십시오.

● 행사안내

- 기간 96.9.2~12.31
- 장소 컴퓨터통신 유니텔내 '취업엑스포 '96' 특집서비스
- 방법 기존 유니텔ID

각 대학 취업부도실에서 배포된 무료ID

※ 취업엑스포 문의 '취업엑스포 '96' 사무국(02-528-0411/3)  
※ 가입문의 유니텔 고객센터(02-528-0114~7)

정보기술 서비스 전문회사

**SAMSUNG**

삼성데이터시스템

# 구대위, 구속학생 돕기에 '동분서주'

## 면회하기·편지쓰기등 다양한 활동 전개

한총련 범민족대회와 관련하여 구대위 10명이 구속된 사안으로 도서관 앞에서는 '구속학생 석방과 학원인정화정책 분쇄'를 위한 집회와 농성이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다. 구속학생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황인구(아간영문·4)군을 비롯해 조달현(수교·3), 이국환(신방·1), 김재영(연영·3), 유민우(아간영문·3), 박병남(무역·4), 윤성진(국문·4), 서지원(농업경제·4), 이상인(컴공·4), 박선영(신방·2)군 등 10명으로 최종 확인됐다.

구속학생대책위원회(위원장=구송아·식물자원학과) 이하 구대위는 친박농성 기간중에 수절관, 모금활동, 서명작업, 설문조사 등을 실시

해 학생들에게 동참호소와 선전전을 벌이고 있으며, 각 단대별로는 선전활동, 면회하기, 편지쓰기, 구속학생 부모님 만나보기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구대위 위원장 구송아양은 "연세대 항쟁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언론의 편파 보도 탓인지 별로 좋지 않은 현실"이라며 "구속된 학생들은 우리와 같이 공부하고 생활했던 친구들이지 절대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학생들이 올바르게 알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법호사 선입비용이 1인당 최소 1백만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모금활동을 벌이는 것"이라고 말하며 동참을 호소했다.

오는 12일에 있을 총학 2학기 진군식까지 전담농성을 계속 벌일 예정인 구대위는 재판까지 지속적으로 모금활동과 면회, 위로편지쓰기 등을 벌일 계획이다.

### 다량관 교직원식당 개관

다량관교직원식당이 1달간의 내부공사를 끝내고 지난 9월3일 개관했다.

지난 7월에 입찰결과 새경영주로 선정된 이우해(전 백상집 경영인)씨는 개업에 의해 "한대식각의 실내장식으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음식비와 가격도 적정하게 책정하여 상업성에 앞서 대학복지차원의 서비스정신을 살려 운영하겠다"고 경영방침을 밝혔다.

입주신청은 입찰 희망 업체의 서류심사를 통해 일해에 시설투자액, 보증금, 임대료부담에서 생활협동조합 발기인회 운영위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이우해씨가 지난 7월9일 선정이 확정됐다.

# 한의대 16일까지 등록 연장

## 학칙개정 등 학생구제책 마련

지난 31일 본교는 한의대 유급에 의한 제적과 관련해 교육부로부터 학칙개정 인가서를 받고 오는 16일까지 재등록 기간을 연기했다.

또한 예전의 제적사항이 연속유급 2회 단기별 유급3회였던 것이 96학년도 1학기부터는 연속유급 3회, 단기별유급 4회로 바뀌어져 한의대 사태는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생회측은 여전히 전학년의 등록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학교측은 학생들의 제적 등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학칙개정 승인요청과 등록유도를 하고있기 때문에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다.

학칙개정 승인을 교육부에 요청한 학교측은 등록거부를 한 한의대 학생을 설득하기 위해 지난 30일 학생을 제외한 학부형간담회를 하

는 등 다각적 방법을 동원, 본교 등록률은 타대학과 달리 40%이상으로 올랐다.

그러나 간담회를 갖는 과정에서 "학교측이 학부형에게 직접전화를 걸어 학생들의 자율성을 강박하며 등록을 권유했다"고 학생측은 주장하며 이에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지난 3일 한의대 학생들은 과도의 이후 입정장리를 하여 지난 4일 교무처장실을 방문하고 3차장과의 간담회를 요구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학생측은 학교당국의 입정성명을 듣고 해산했다.

본교 학생회는 등록거부라는 전한면 입장을 동일하게 고수하고 있어 재등록이 끝나는 오는 16일이 지난후에야 수업복구부분이 명확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 중국어 회화 교수 초빙

## 북경대·청화대서 1명씩

연구교류처(처장=임기중·국문학)학술교류부는 중국어 회화 담당교수 2명을 이번달 내로 초빙할 예정이다.

현재인원을 초정해 회화의 실력을 높이는 취지아래 중국 재대학인 북경대와 청화대에 각각 1명씩 초빙할 계획이며 서울·경주원퍼스 중문과 중국어회화 강좌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에 초빙될 교수는 학생들과의 원활한 수업진행을 위해 영어구사가 가능한 자로 제한할 계획이다. 현재 중문과 회화를 담당하는 교수는 한국어와 영어 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통역관을 두고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한편, 선출된 2명의 교수는 월1백, 40만원 봉급에 숙소제공 및 의료보험등의 혜택을 받는다.

# 학·전·무·대

동작 그만!

○...2시간, 3시간 연장하는 교양수업시간, 처음, 중간, 끝의 학생수들이 들쭉날쭉이었는데, 나가면 채워지고 채워지면 나가고 학생수가 흡사 고무줄처럼 유동적이라고.

강의도중 이동하는 학생들의 대단한 행동은 낯이 갈수록 그 위험수위(?)를 넘어가기도.

이런 한심한 작태에 이번에 북한학 학생들 구대위 회장하루 일포아 한다.

"수업시작후 이동병력 없음!!!"

조교선생님의 비애

○...여기는 1학년 학생들의 교양수업 '컴퓨터 실습'이 진행되고 있는 해학관 실습실. 이곳에서 뛰어나는 사람이 있어 살펴보니 다음아닌 조교선생님인데.

50명이 넘는 학생들을 혼자서 지도하니 몸이 열개라도 모자라고 게다가 고장난 컴퓨터가 많아 학생들은 이리저리 명탐이 뛰어나고, 그러다보니 실습실은 시종바닥!

이에 조교선생님 체념한 듯 "불쌍한 이내 신세, 컴퓨터야! 그래도 너만은 멀쩡히 버텨주렴!"라고 종용증류

죽구제일주의

○...동국관 앞 도로한복판에 '안전제일'표지판이 세워져 있어 그 앞을 지나는 학생들은 땅이라도 꺼지나 싶어 조심스럽게 지나간다는데.

무엇인가 하니 '안전제일' 표지판과 건너편 나무에 빨래줄을 매달아 추구를 하는 것이었으니

어디서 난 '안전제일'판인가. 공사하는데서 가져왔다. 공장에서 가져왔다. 추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불편도 개의치 않는 그들은 '죽구제일주의'!

허공에서의 의침

○...'첫번째 메시지입니다' "....."

호흡기 음성사람을 여러번 확인해 보지만 남겨진 메시지는 통한 침묵뿐. 음성사람으로 숨바꼭질하는 것일까?

알아본 즉, 명진관, 도서관, 본관, 학생회관에 설치된 공중전화의 잦은 고장으로 음성녹음이 안되기 때문이라는데.

공중전화 수의 부족으로 불편을 겪던 학생들에게 이전 불인감마저 더해지고.

이에 한 학생은 "산산이 부서진 목소리며" 허공속에 헤어진 이름이여!"

# 17일 모의면접 실시

## 인사담당관 초빙...사원채용 대비

취업과(과장=김철서)와 졸업준비위원회(회장=남익희·경제4)는 오는 17일 오후 1시 학술문화관 예술극장에서 모의면접을 실시한다.

기업의 신입사원채용형태 변화로 중요시 된 면접을 학생들이 미리 경험해보도록 면접에 자신감을 갖게 하기위해 처음으로 계획된 이번 행사는 면접관으로 현대건설, 기아자동차, 삼성생명, 한국일보, 디젤모터시지, 금강개발산업등의 인사담당관이 초빙된다.

메이컴넷 코디강연, 집단면접, 집단토론회면접등의 순서로 이어지며, 우선 집단면접은 총3개조 15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면접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이며 면접후에는 참여학생의 응답내용에 대해

면접관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이를 즉시 교정해준다.

총2개조 10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집단토론회면접은 정해진 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이고 토의가 끝나면 면접관들이 장단점을 지적해 개개인에게 알려준다.

4학년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모의면접에 직접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취업과로 신청하면 되고, 선착순 30여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취업과 김철서 과장은 "이번 모의면접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방청은 누구나 가능하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다량관 교직원식당 개관

다량관교직원식당이 1달간의 내부공사를 끝내고 지난 9월3일 개관했다.

지난 7월에 입찰결과 새경영주로 선정된 이우해(전 백상집 경영인)씨는 개업에 의해 "한대식각의 실내장식으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음식비와 가격도 적정하게 책정하여 상업성에 앞서 대학복지차원의 서비스정신을 살려 운영하겠다"고 경영방침을 밝혔다.

입주신청은 입찰 희망 업체의 서류심사를 통해 일해에 시설투자액, 보증금, 임대료부담에서 생활협동조합 발기인회 운영위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이우해씨가 지난 7월9일 선정이 확정됐다.

### 입정대 학술대회 참가

일본 입정대 인도학박람회(이시자=前田)의 초청을 받아 본교 5명의 교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일본에서 치뤄진 제47회 학술대회에 참가했다.

일본 입정대 인도학박람회(이시자=前田)의 초청을 받아 본교 5명의 교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일본에서 치뤄진 제47회 학술대회에 참가했다.

초청된 장예순(불교학), 이범산(선학), 한태식(선학), 최정술(선학), 홍은식(역사교육)교수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 선원(禪院)생활의 연구, 한국사회의 구조적 특징과 그 문화등을 발표했다.

# 연구비 수주실적 대폭 늘어

## 1학기중 1백4과제에 20여억원

96학년도 1학기 연구비 수주실적에서 수주과제수가 1백4건, 수주액이 20억을 넘어서는 등 본교 교수들의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교육부, 학술진흥재단, 과학재단 및 기업체에 제출한 과제수는 지난 한해동안의 과제수 1백9건과 맞먹는 수치로 학교당국이 특별학술연구비와 논문게재연구비를 지원해 교수들이 연구에 관심을 집중, 이차 연구활동이 급격히 늘어났다.

또한 작년 한해동안 지원받은 27억원의 수주액과 역수가 비슷한 20억이 이번 1학기에 정부 및 기업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96년도 한해의 수주실적은 작년어 비해 2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교수들이 지원받은 수주액은 교수들이 직접 관리하던 이전방식에서 연구교류처(처장=임기중·국문학)연구부가 관리하는 연구비중앙관리 형식으로 바뀌었다.

# 수재학생 학비감면

## 장학과(과장=오홍호)는 수재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학비감면을 실시한다.

지난 7월26일부터 28일까지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부지역 거주인 자녀이고 가정회비 이상의 장학금을 받지않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감면혜택을 준다.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장학과에서 접수할 받으면, 제출서류로는 보호자 주민등록증, 해당 시장 또는 군수수해 확인서가 필요하다.

한편, 이번 수재학생 학비감면에 대해 장학과의 백경선 계장은 "철원군청과 교육부에서 보내온 공문을 참조해 수재학생들의 학비에 도움을 주기위한 것"이라고 그 의의를 밝혔다.

### 야층 입학식

아간강좌총학생회(회장=구장주·경영4)는 오늘(9일) 5시에 동국관(L동) 4층에서 학생회실 입학식을 갖는다.

이번 입학식은 지난 학기에 있었던 야층의 '공강학부포럼'이 방종에 마무리되면서 4층 교수휴게실 개조공사, 5층 휴게실의 공간 확보가 이루어져 마련됐다. 이에 구장주(경영4)군은 "학우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물인만큼 앞으로는 학생회실 제모습 찾기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학원 총학 의약품 전달

대학원 총학생회(회장=김태호·철학사4)는 지난 19일 50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전달했다.

김태호(철학사·4학기)군은 "모금활동을 통해 앞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귀향버스 사업 추진

## 직영매장 운영수입 환원차원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서동욱·무역4 이하 학복위)는 귀향버스 접수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받는 한편 제주도행 비행기 예매는 내일(10일)까지 받는다.

현재, 버스는 29대(1천2백명분), 비행기는 35좌석이 예약돼 있는 상황이며 교통비는 도시락과 기념품을 포함해 버스는 편도 5천원, 비행기는 왕복6만7천6백원으로 결정됐다.

학복위는 내일(10일)부터 버스편 홍보에 들어갈 예정이며 출발은 오는 24일로 본교 대운동장에서 오전 11시에 출발하게 된다. 또한 제주도행 비행기는 같은날 오후 6시40분 김포공항에서 출발한다.

한편, 귀향버스 도시락 노선은 광주를 비롯한 7개시는 직통, 대전을 비롯한 30여개시는 타도시를 경유하며 버스차량수는 다음과 같다.

△광주직통=3대 △정읍직통=1대 △여수직통=1대 △마산직통=1대 △대구직통=1대 △부산직통=4대

△포항직통=1대 △속초(홍천, 인제, 원통, 속초 경유)=1대 △삼척(강릉, 동해, 삼척 경유)=1대 △서천(정안, 은양, 예산, 대천, 서천 경유)=1대 △대전(성주, 대전 경유)=1대 △군산(이리, 군산 경유)=1대 △남원(전주, 남원 경유)=2대 △목포(영산포, 목포 경유)=2대 △고흥(순천, 벌교, 고흥 경유)=1대 △진주(마산, 진주 경유)=2대 △안동(원주, 제천, 영주, 안동 경유)=2대 △상주(장호원, 충주, 점촌, 상주 경유)=1대 △울산(경주, 포항, 울산 경유)=1대 △대구(김천, 구미, 대구 경유)=1대

한편 학복위의 한 관계자는 "귀향사업은 직영사업 매장 운영결과 남긴 수익을 학생들에게 환원하는 사업중의 하나라며 학생 개개인이 표를 구입하는 수고를 덜어주며 학생들의 연대의식을 높이는데 의의를 두고있다"면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길 바란다"고 말했다.

## 3 4 9 1



◆ **암체**... 철소한 주차공간, 넓쳐나는 차량으로 심하게지는 주차난, 차량통행에도 불구하고 학내에 주차되고 있는 차량들, 불법주차를 견제할 수 있는 강제적인 견인제도가 없는 지금, 학내 불법주차차량 근절은 먼 곳의 얘기가 아닐런지? 사진은 주차위반 스티커가 4장씩이나 붙어져 있는 암체차량. (이태훈 기자)

## 수해지역 대학생 학비감면

수해지역 대학생 학비감면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대상학생 : '96년 7월26일~28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부지역 거주인 자녀로 우리대학에 '96년 9월1일 현재 재학중인자
- ※단 기성회비 이상의 장학금을 받지 않는자
- 감면금액 : 기성회비 전액(₩ 517,000)
- 신청기간 : '96년 9월10일~9월30일
- 제출서류 :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해당시장 또는 군수 수해 확인서
- 제출처 : 장학과

1996. 9. 10

---

## 이동병무상담

1996학년도 2학기 복학생 및 재학생을 위한 이동 병무 상담실을 병무청 협조로 아래와 같이 운영할 예정이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상담을 바랍니다.

아 래

- 상담일시 : 1996년 9월 12일(목요일) 10:00~17:00(1일간)
- 상담원 : 서울 병무청 직원
- 장 소 : 취업 자료실(본관 취업과역)

**학생처장**

## 수강신청 최종확인

'96학년도 제2학기 수강신청 최종확인 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수강신청 및 정정 이상유무를 필히 확인하기 바람.

- 기 간 : '96. 9. 13(금), 1일간
- 장 소 : 각 대학 교학과 및 학과
- 유의사항

가. 개인별로 배부된 최종확인원과 본인이 현재 수강하고 있는 강좌를 확인하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기 바람.

나. 전산처리 오류, 추가분반 및 폐강으로 인한 강좌변경등의 부득이한 경우만 정정 가능함.

**교무처장**

## 교육학 특강

28대 사범대 학생회는 교적으로 나가고자 하는 학우를 대상으로 오는 9월16일부터 "1996년도 교육학 특강"을 실시 합니다.

아 래

**1996년도 교육학 문제풀이 특강**

강사:곽내영(노랑진 한교 고시학원 전임강사)

일시:9월16일~10월8일, 늦은 7시

(매주 월, 화 3시간씩 총 24시간)

수강료(교재비 별도):사대생(55,000원) 비사대생(60,000원)

접수시간:9월5일~13일(강의 도중 접수 불가)

접 수 처:학림관 지하 사범대 학생회실(전화 260-3661)

**사범대 학생회장**

## 모 의 면 접

도전하는 우리,  
여기 길이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그 길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유명화장품회사 감사의 메이크업, 코드 강연

■대기업체의 임원급 인사담당관을 직접 초빙

하여 벌이는 집단면접, 집단토론회 면접

△일시:1996년 9월17일(화) 13시~17시

△장소:학술문화관 예술극장

△대상:취업에 관심있는 모든 학생(특히 4학년 재학생 환영)

△주최:동국대학교 학생처 취업과, 졸업준비위원회

문의처:취업과(260-3054~5)

졸업준비위원회(260-3613)

